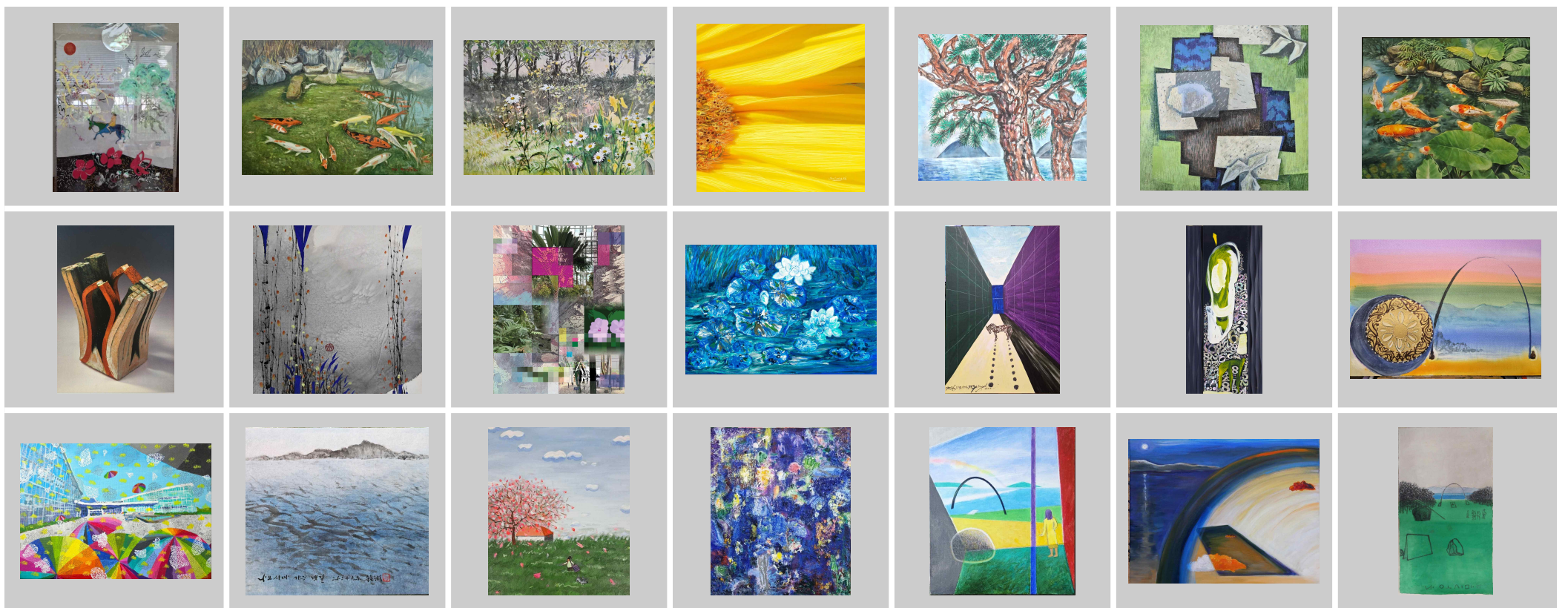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그림속 여행’ 개최

본회(회장 권영길/ 69응미)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창동 아트스페이스 쉼리아에서 ‘그림속 여행’을 개최했다. 본회와 MOU를 맺은 아트스페이스 쉼리아(대표 박수현)의 협찬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

는 본회가 지난 4월 진행한 일본 나오히마 미술여행과 5월의 세종시 여행에서 얻은 예술적 영감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미술여행 전에는 김경희 노명자 류은자 민수정 박소영 박혜경 박혜령 서동희 손희옥 신경훈 안영나 이민주 이정연 장규자 조온영 조은경 채혜선 최명애 최미영 한석란 황인혜(위 작품순) 동문이 참가했다.



2학기 장학금 수여

본회는 지난 8월 24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열린 2학기 장학금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본회 채혜선(82응미)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황인성(25조소) 조소과 회장, 김나연(24공예) 공예과 회장, 강승현(25디자인) 디자인과 부회장 등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마이컬렉션 개최

본회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소장품전 '2026 마이컬렉션'을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 PaL에서 개최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후원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한 이번 전시는 본회와 MOU를 맺은 갤러리 PaL(대표 이영선)이 협찬했다. 마이컬렉션은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보여줌과 동시에 소장품 중 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작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새 보금자리를 찾아 주기 위한 목적의 전시회로 이번 전시에는 1900년 이후 작품들이 출품됐다.

회장동정



한국·중국·베트남 특별미술전시회 기조연설

본회 권영걸 회장은 지난 8월 26일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중국·베트남 특별미술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코리아씨이오 서밋(KCS)이 주최하고 아시아 아트피아드위원회(AAC)와 세계조형예술협회(IAA)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서 권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예술과 디자인, 도시문화가 서로 융합하는 시대에 이번 국제전시회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박봉규 KCS 이사장,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재난안전연구 네트워크 세미나 참석



권영걸(세종문화원 원장) 회장은 지난 8월 20일 세종시 세종연구원에서 개최한 <2026년 지역 재난 안전 연구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역 맞춤형 재난 취약성 진단과 도시 회복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권회장의 환영사와, 축하, 기념사로 시작되었으며, 도시안전연구센터의 비전 브리핑과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가을학기 미술강좌 시간표 9.4~12.24

전 강좌 초·중·고급 과정

월	화	수	목	금
기초소묘드로잉 오후 10:00 ~ 13:00 콘테와 오일파스텔을 이용한 기초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자유재료 자유소재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 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자유 크로키 오후 14:00 ~ 17:00 누드 강사 없음	자유창작 자유재료 자유소재 유인수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ONE DAY CLASS

10.17(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항

접수 방법
접수 : 010-8605-8065 문자
입금 : 301-0252-4434-51 농협 권영걸(서울대미술동창회)

수강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45만원 (15회)
자유크로키 24만원(12회)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재료비 포함

강좌/강사/환불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비납부 안내

회원 여러분께서 내시는 소중한 회비는 동창회의 원동력입니다!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 (2026.8.16.-9.15) 가나다순

■ 일반회비 박종규(69응미) 서동희(66응미)

후원내역 (2026.8.16.-9.15) 가나다순

■ 기 부 금 류은자(SGS14기) 10만원

■ 광고후원 허 진(81회화) 30만원

■ 작품기증



민수정(82회화)
연결의 기억
20×20, 디지털, 2026



박소영(73회화)
꿈같이 가는길_려
20×20, 수묵담채, 2025



박혜령(74회화)
모란
41×31, 수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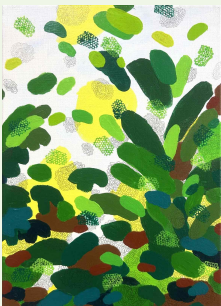
손희옥(68회화)
내일의 꿈
24×24, 먹·채색, 2024



신경훈(74응미)
세종수목원 이야기 2
23×16, 아크릴릭, 2026



이민주(76회화)
공의 공명
22×27, 아크릴릭, 2024



조은영(74회화)
세종나들이
34×24, 아크릴·연필, 2026



조은경(61회화)
나오시마 가는 뱃길
46×30, 수묵담채, 2026



채혜선(82응미)
In the Loop 4
35×27, 아크릴·유화, 2026



최명애(70회화)
Spring
73×61, 아크릴릭, 2023



최미영(70응미)
나 여기 있어요
24×33, 유화, 2000



황인혜(65회화)
나오시마 기행 2
35×10, 혼합재료, 202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종상(59회화) 본인상

본회 고문이자 모교 명예교수인 이종상 동문이 지난 9월 8일 별세했다. 고인은 대한민국 화폐의 초상화 등 많은 역사 인물들의 영정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고인은 1938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비교미학 석사 및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며 서울대학교박물관장, 문화재위원회 박물관분과 전문위원, 한국벽화연구소장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서울국제미술제 부이사장, 중앙비엔날레 운영위원장,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시기획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운영자문위원장,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준비기술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동문은 오천원권 지폐의 이이 초상화와 5만원권 지폐의 신사임당 초상화를 그렸다. 이는 최초로 모자(母子)가 통용 화폐의 초상화로 묘사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이를 모두 한 인물이 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서로 '화실의 창을 열고', '중등미술', '술바람 먹내음'이 있으며, 공보부 신인예술상 최고상, 국전 특선, 은관문화훈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가장 문학적인 상 미술인 부문, 독도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는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을 온라인소식지 '서울대미대 동창회 E-NEWS'를 매월 발간해 동문 및 관련단체 등 45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또한 SNS계정(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와 SNS계정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회원께서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립니다. 축하·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연회비(평생회비) 납부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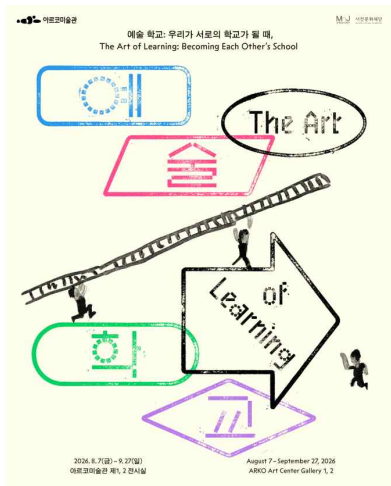
개인전 및 단체전, 기업 홍보를 하시면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4500명) 발송, SNS(인스타그램, 밴드)업로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모교소식

예술학교: 우리가 서로의 학교가 될 때



모교 서양화과 '머터리얼 라이브러리'가 참여하는 기획전 《예술학교: 우리가 서로의 학교가 될 때》가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MnJ문화복지재단과 서전문화재단이 공식후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머터리얼 라이브러리와 모크캠프, 버드콜, 쿠로다, 큐레이팅 스쿨 서울, 행복반, PIE, YPC x 학회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예술대학이나 기존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것들, 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스스로 채워가고 있는지, 배우고 조직해 온 그 움직임을 소개한다. 《예술 학교》는 공동의 관심사로 모인 동인, 콜렉티브, 스튜디오, 미술공간, 학교 - 8팀, 42명의 작가와 함께한다. 이들이 예술 현장에서 창작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지, 협업과 공동창작, 지식 나누기, 동료 만들기를 통해 어떻게 배움을 실천해 왔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전시는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 리허설과 연습이 일어나며, 워크숍과 토크,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창작 '과정' 그 자체가 되고자 한다.

디앤디파트먼트 설립자 나가오카 겐메이 특별강연



모교는 지난 7월 19일 모교 오디토리엄에서 디앤디파트먼트 설립자 나가오카 겐메이의 신간 『디자이너 마음으로 걷다』 출간을 기념해, 저자의 방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책과 디자인, 지역, 가게, 그리고 브랜딩에 관해 이야기한 이번 강연은 재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에 처음 소개된 나가오카 겐메이의 책은 2009년의 『디자이너 생각 위를 걷다』로, 원서는 2006년 출간되었다. 당시 '개성파 디자이너'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던 그가 2025년이면 환갑을 맞이하고, 그 사이 디앤디파트먼트가 서울과 제주에도 생겨 나가오카 겐메이의 디앤디파트먼트 프로젝트도 우리에게 한층 가까워졌다.



잠깐, 샤로수

전시 프로젝트 <잠깐, 샤로수>가 2026년 작가 전시 공모를 진행했다. <잠깐, 샤로수> 프로젝트는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주관하였으며, 관악구청의 도움을 받아 관내 대학교 구성원들과 전시를 만들어보고자 기획되었다. 기획자 배진선과 프로젝트 매니저 김기홍으로 구성된 위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혹은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개인 혹은 팀을 공모받아 참여작가를 선정하였다. 각 전시마다 워크숍 2회 비용을 포함한 1,000,000원의 예술 창작 보수를 제공하였고,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관내 대학교 구성원 및 졸업생의 시각 예술 창작을 도모했다. 현재 프로젝트는 가가가(Gagaga) x 박재희(Jay PAK), 김태훈(Kim Taehoon), 박동원(Park Dongwon), 로컬 만물(Local Manmul)로 총 4팀이 진행하며 한 공간에서 지난 9월 2일 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시한다. 사라진 봉천동의 이야기를 다루는 로컬 만물(Local Manmul) 팀과 일상적 소통의 지연 문제를 매개로 작업하는 가가가 x 박재희 팀, 변화하는 대상을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김태훈 작가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관악구와 서울대학교 예술가들을 잇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예술 생태계의 진보적인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회소식



서울대창업캠프 : The I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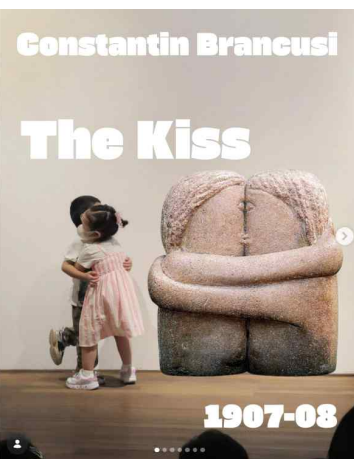
모교 학생회(회장 손예은) [이음]이 공과대학 학생회 [새결]과 연합전공 벤처경영학과 학생회와 연합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2회 서울대학교 창업 캠프 : The Ignition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공대, 미대, 벤처경영 학부생들 간의 연결 및 미래의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들이 팀을 이루어 2박 3일간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학부생의 입장에서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한 결과물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창업 캠프의 주제는 '개인을 위한 따뜻한 솔루션'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필코노미의 부상 속에서 개인의 일상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변화를 만들어낼 아이디어를 기대했다. 위 캠프에는 2026-1학기 기준 서울대 학부생을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1,2일차), 관악캠퍼스(3일차)에서 진행되었다.



사미인곡 연합축제 개최

모교 학생회 [이음]은 지난 9월 8일 잔디광장에서 축제 '2026 사미인곡 연합축제'를 진행했다. 행사는 사범대·미대·인문대·음대가 함께하는 연합 축제로, 일상적으로 마주하던 잔디광장을 테마파크로 재해석하여 재학생들에게 환상적인 모험을 제공했다. 축제는 6개의 게임부스로 이뤄졌으며, 명사수를 위한 [슈팅 갤러리], 아슬아슬 핀을 쓰러트리는 [빠에로의 치과], 관악 최고의 보안관을 찾는 [카우보이 훈련소]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지닌 재미있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미술관 소식



조각이 되어보기

서울대미술관이 지난 7~8월 휴관기간을 활용해 서울대 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미술관을 개방해 내부 공간을 탐방하고, '조각이 되어보기' 체험을 진행했다. 작품이 없는 텅 빈 미술관의 공간을 관람하며 높은 천장과 기울어진 모양, 빛이 스며드는 벽과 계단, 그리고 미술관 바깥의 자연 풍경까지 모두 탐험했다. 또한 '조각이 되어보기' 체험을 통해 여러 조각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작품 속 자세와 몸짓을 하나씩 따라했다.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움직이고 멈춰보며 미술을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상상의 정원

서울대미술관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돌보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을 진행한다. 서울대 재학생 20명 내외를 가드닝 크루로 모집하며,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식물을 심고 돌보는 '정원 가구기 워크숍'을 시작으로, 위 과정을 기록물로 제작해 생태, 환경미술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발표하여 <상상의 정원> 결과를 전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서울대소식



이효상·배수옥 동문부부 장학금 200만달러 쾌척

서울대학교 유흥림 총장이 지난 7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인근 식당에서 이효상(66물리)·배수옥(71농화학)이효상·배수옥 동문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문부부는 지난 7월 14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배수옥 농생명화학 혁신인재 장학금'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쾌척했다. 이번 기부금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문부부는 은사인 고 김철수 교수(물리천문학부)를 기리기 위해 김철수교수기념관 설립기금 약 53억 원을 기부해 2024년 제17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동문은 미국 이주 후 항공분야 기업 Science & Engineering Services(SES), LLC를 설립해 글로벌 기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대로보틱스연구소 개소



서울대는 지난 8월 18일 관악캠퍼스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서울대로보틱스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로보틱스연구소는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형 로봇, 신체 기능 보조 및 확장 웨어러블 로봇, 체내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 로봇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연구소는 지난 7월 국가연구소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최대 10년간 연 100억원 수준의 연구비와 연구 인프라를 지원받는다. 이날 로보틱스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로봇들이 전시됐고, 서울대 로봇 동아리 '셰이프(SHAPE)' 학생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피엔스'는 춤을 추고 공중제비를 돌며 인간의 동작을 따라 했다.

코덱스로 100여개 보고서 동시작업



고길곤 서울대 정보화본부장 겸 행정대학원교수가 10년 넘게 씨름해온 국가 현황 보고서 작업을 챗GPT 코덱스로 풀어냈다. 자료 수집부터 출처 검증, 통계 시각화, 원고 작성까지 AI가 단계별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교수는 지난 8월 20일 오픈AI코리아가 개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오픈AI의 코딩 에이전트인 '코덱스'를 활용한 국가 현황 보고서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고교수는 코덱스를 활용한 '컨트리 리포트 에이전트' 플랫폼을 직접 구축했다. 이 에이전트는 국가 구조와 특수 쟁점 파악, 출처 및 인용 검증, 통계 시각화, 원고 작성 등 역할을 세분화해 수행한다. 레퍼런스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검증하도록 별도의 프로토콜도 설계했다. 고교수는 현재 이 방식을 활용해 약 100여개 보고서를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챗GPT로 사회복지 문제 해결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혁신 임팩트 랩(SNU CSI)이 오픈AI,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다. 지난 8월 25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챗GPT 워크(ChatGPT Work)와 코덱스(Codex)의 에이전트 역량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미니 해커톤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SNU CSI가 운영하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2차 핵심역량교육 프로그램이다.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 오픈AI는 참가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구조화하고 제품요구사항문서(PRD)를 작성하면, 이를 챗GPT 워크와 코덱스를 통해 웹페이지나 앱 형태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커톤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와 학부대학원생 등 30명이 5개 팀으로 나뉘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 돌봄 기록 및 인계 지원 도구, 정신건강 회복지향 사례기록 검토 도구, 1인 가구 생활 관계망 파악 앱, 교육복지 대상자의 회기별 변화 추적 도구, 병동 보호자를 위한 심부름 공유 플랫폼, 퇴원 노인 환자의 일상 위험 조기 발견 앱 등 실질적인 AI 기반 솔루션을 구현했다.

새학기 앞두고 시설정비 및 서비스개편



학생회관 장애인 겸용 승강기가 완공되어 지난 8월 24일부터 운행한다. 위치는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6(24동) 사이 부출입구이며, 지하 1층까지 운행한다. 행정관 1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며, 우체국은 지난 8월 3일 학생 지원 기능이 모인 두레문예관(67동) 1층으로 이전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체육관(71동) 3층 복도에는 실내 러닝 트랙이 들어섰다. 구체적인 이용 개시일과 이용 시간, 이용 방법은 추후 스포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기획과는 QR코드를 활용한 공사 현장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사 현장 가설펜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사 개요와 금·차주 계획, 조감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화본부는 지난 8월 12일 지능형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를 개편했다. 비교과 연계와 자기 주도 학습 로드맵, 생성형 AI 서비스 연계 기능이 강화됐다. 학생처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던 공식 건학 신청 시스템을 통합해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며, 학생 지원 업무 탐색을 돕는 학생처 챗봇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912명 탄원 모여 5516



지난 7월 한남여객운수 차고지 이전으로 서울대와 대학동을 잇던 5511과 5516 버스 노선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대학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하교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윗공대에서는 대학동 고시촌 부근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이 모두 사라져 학생들의 불편이 컸다. 학생사회의 노선 조정 요구 끝에 지난 8월 14일부터 5516이 다시 '대학동고시촌입구'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5511의 대학동 노선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서울시에 5516을 대학동까지 직접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서울시는 5516 노량진행과 종점행의 교내 운행 경로를 서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6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해당 방안이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5516 대학동 연장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5516번 버스 종점 변경 서울대 구성원 탄원서 연서명'에는 구성원 912명이 참여했다. 학생측의 재조정 요구는 실제 노선 연장으로 이어졌다.



SNU드림투어: 동문자녀 모교탐방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준식)는 지난 8월 5일 관악캠퍼스에서 ‘2026 SNU드림투어: 동문자녀 모교탐방’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자녀인 중학생 50명이 참가했다. 서울대 동문 자녀들이 부모가 공부했던 모교를 직접 경험하고, 대학 생활과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특강과 캠퍼스 탐방, 재학생 멘토링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동문 학부모도 참석해 첫 일정을 함께했다. 서울대의 역사와 역할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준식(72기계) 회장은 “진로의 출발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경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울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첫 프로그램은 신중호(86교육)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진행한 진로 특강이었다. 특강을 마친 학생들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당 ‘두레미담’에서 재학생 멘토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오후에는 서울대 홍보단 ‘샤인’과의 대화에 이어 캠퍼스 외곽순환도로를 도는 버스 투어를 마친 뒤 역사관을 비롯해 도서관과 체육시설, 학생회관 등을 도보로 둘러봤다. 마지막 순서는 재학생들과 함께한 그룹 멘토링이었다. 행사는 수료장 수여와 기념품 증정으로 마무리됐다. 총동창회는 동문 자녀의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한 차례씩 연 2회 모교탐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팔 봉사활동 및 제주 공헌활동 지원

총동창회가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한 네팔 봉사활동에 7000만원, 제주 공헌활동에 2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하계 글로벌 SNU공헌단은 지난 7월 18일 네팔(자체팀)을 시작으로 7월 21일 인도네시아, 8월 3일 우즈베키스탄, 8월 6일 동문과 함께하는 네팔팀까지 모두 4개 팀 100여 단원이 참여했다. ‘동문과 함께하는 네팔팀’에는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보건 분야 동문 6명이 참여했다. 의료계 동문들은 아동의 신체 발달 상태를 측정하고 기초 보건교육을 맡았다. 이에 앞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 대정중학교에서는 ‘2026 동문과 함께하는 제주 SNUSR+LnL’ 활동이 열렸다. 건설환경도시공학부 최용주 교수와 LnL 이진주·정지인 교수를 비롯해 동문단원과 학생단원, 직원 등 36명이 대정중 1학년 학생 11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펼쳤다. 총동창회는 2023년부터 제주 파견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2026 SNU 홈커밍데이

•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

2026 SNU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 무한한 상상 · 담대한 도전 · 새로운 미래 🌟
Boundless Imagination · Bold Innovation · New Horizons

일시 2026. 10. 18.(일) 11:00~16:30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풍산마당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2026 SNU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

- 일 시: 2026. 10. 18.(일) 11:00-16:30
장 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 · 풍산마당
※ 우천 시 종합체육관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
- 주요 프로그램**
11:00-13:00
○캠퍼스 자율탐방-코스·기관별 도슨트 운영(홈페이지 안내)
○참가등록(풍산마당)-본인 확인 및 행운권 접수
※ 참가등록은 오후1시 마감, 행운권은 동문 본인만 접수 가능
○식전행사(버들골)-재학생동아리활동 체험, 미니게임, 바자회 등
※간식·생수제공(선착순2,000명), 풍산마당 푸드존 운영(10:00-17:00)
- 13:00-16:30**
○ 공식행사(풍산마당)-개회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 경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 참가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6. 10. 8(목)까지
○신청방법: 문자(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ac.kr)
○참가신청양식
·제목: 홈커밍데이 참가 신청
·성명, ·학과/입학연도, 인원수(본인포함)
·휴대전화번호 :



관악경제인회 정기조찬포럼

총동창회 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LG에너지솔루션 전 부회장 권영수(75경영) 동문을 초청해 '경영이란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권동문은 특강에서 경청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근본적인 기술이자 경영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박준희(SPARC 20기)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젊은 최고경영자는 능력을 믿되 끊임없는 배움과 겸손한 자신감이 바탕이 됐을 때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며 강연을 들은 소감을 밝혔다.

동문소개

김소선(63조소/1944-2026)



김소선 동문은 한국 전통 민화의 조형성과 정신을 현대적인 유화 기법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예술가이다. 특히 민화 속 호랑이를 친근하고 해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호랑이 작가'로 이름을 알렸고, 전통적인 소재에 현대적 감각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해 한국적 미감을 새로운 예술언어로 풀어냈다.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60세 무렵부터 민화 속 호랑이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20여 년 동안 전통 민화의 소재를 중심으로 까치, 용, 토끼, 뱀, 말 등 다양한 동식물을 그리며 자신만의 화풍을 발전시켰다. 그의 작품 속 호랑이는 순수하고 익살스러우며 때로는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등장한다. 민화 특유의 해학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 동문의 호랑이는 보는 이에게 친근함과 따뜻한 웃음을 전한다.

김동문은 전통 민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민화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서양화의 유화 기법과 결합하고, 우주와 자연, 꽃 등의 요소를 자유롭게 배치해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담긴 정서와 민족적 정신을 보다 보편적인 현대미술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해마다 띠동물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용과 뱀 등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강한 이미지를 지닌 동물들도 김 동문의 화면에서는 밝고 친근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러한 작업은 전통적인 상징을 현 시대의 감각으로 표현하는 그의 예술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동문의 예술관은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논어에 '무엇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라며, "과거에는 '잘 그리는 것'을 그림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을 즐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작품의 완성도와 기교를 넘어 창작 활동에서 기쁨을 찾고, 관람객과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편안하게 소통하고자 한 것이다. 2024년 9월 서울대미대 동문들과 함께한 '놀자전'은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전시였

다. 전통 민화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유화 기법과 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예술을 자유롭게 친근하게 바라보고 즐겁게 소통하고자 했다.



김동문은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와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규석 회장의 배우자로서 한국과 아시아 태권도 발전의 여정을 함께 한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했다. 이회장은 한국체대-용인대-가천대에 태권도학과를 창설했고, 2,000명 이상의 태권도 4단 이상 제자를 양성했으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태권도 품새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한국 태권도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이회장에게 김동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책을 늘 가까이 하고 한결 같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날에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직접 식사를 차렸죠." 두 사람의 신혼집이었던 퇴계로의 공간은 현재 '소선갤러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김동문의 작품세계를 알리는 뜻깊은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김동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제1회 광주세계도자엑스포 홍보작가, 가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 경원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가나아트센터, 진부령미술관, 국회아트갤러리, 목포 성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갤러리 내일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와 한국미술협회전, 한국전업작가전, 아름다운 서울 그림전, 한국의 사계전, 예담회전, 한울회전, 63동문전 등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하며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해외에서도 작업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 개원전을 비롯해 노르웨이 베르겐 국립미술관, 일본 미키모토 박물관, 에콰도르 키토 국립박물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의 달' 기념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초대전 등 해외 여러 기관의 초대전을 통해 한국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했다.

지난 7월 18일 별세한 김소선 동문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민화를 현대 회화로 새롭게 해석하고 예술언어로 확장하여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한 작가였다. 그의 민화는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예술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김 동문이 남긴 작품세계는 전통미술이 현대에 어떻게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63학번 동문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전통미감을 자신만의 언어로 세계에 알린 작가로서 김소선 동문이 남긴 예술적 발자취는 예술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글=배세나 편집국장)

time to retreat.

INSTAGRAM

@dalbot_retreat_official

WEBSITE

www.dalbotretreat.com



달발리트리트 오픈 곽병두(84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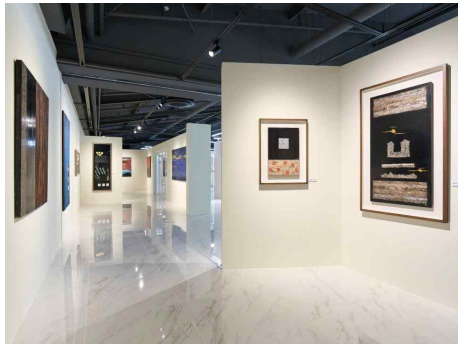
곽병두 동문이 강원도 평창에 하이엔드 웰니스 <달발리트리트>을 오픈했다. '후퇴를 통한 휴식'을 지향한 달발리트리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진이 설계한 야생화 정원과 조병수 건축가의 기지 지평법 철학이 더해져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건축을 완성했다. 숲속 오두막 형태의 '와일드 스테이', 땅의 모양을 살린 '와일드 캠프' 등으로 구성되었고, 빈손으로 와도 웰컴티부터 아침 도시락, 바비큐 밀키트 등 최고급 식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모교 산업미술과 졸업후 삼성전자와 오리콤을 거쳐 전시디자인 전문기업 지엘어소시에이츠 디렉터로 활동했던



곽동문은 30대에 기업을 창업해 치열한 삶을 살다 2012년 업무관련 송사에 휘말리며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일본에서 한 국까지 요트를 몰고, 인제와 영암에서 스포츠카를 타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 지인들과 평창에 터를 잡아 5년에 걸친 개발 끝에 이곳을 열었다. 곽동문은 "자연 속에서 나를 살려낸 산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요가와 목공, 원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야외 결혼식과 음악회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채워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성숙아트존 오픈 나성숙(71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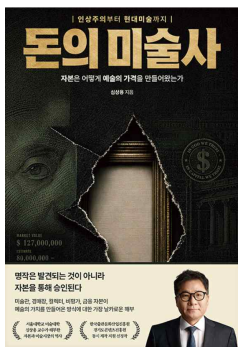
지난 9월 12일 인천지역 대표 대규모 인테리어 전시장으로 새 단장한 영림홈앤리빙 인천쇼룸에 나성숙 아트존이 오픈했다. 나성숙 아트존은 영림홈앤리빙 인천쇼룸의 중문존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으로 마치 나동문의 갤러리에 온 듯하다. 나동문은 옷칠과 나전, 삼베 등 한국 전통 재료가 지닌 미감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데, 각 작품마다 간단한 설명도 함께 붙여 있어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조형 언어로 확장된 북촌의 기와지붕과 민화적 이미지들을 감상할 수 있다. 가구와 마감재만 둘러보는 쇼룸 투어 중, 잠시 작품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어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다.

'돈의 미술사' 발간 심상용(81회화)

심상용 동문이 지난 8월 20일 신간 <돈의 미술사>를 발간했다. 이 책은 모네 '건초더미' 낙찰가 약 1300억원과 전시장 벽에 붙인 바나나 한 개의 판매가 약 86억원을 출발점으로 예술 가격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다. 책은 예술가의 천재성과 작품의 혁신을 중심에 둔 기존 미술사 서술에서 한발 물러나 가격 형성의 주체를 살핀다. 미적 판단, 제도적 권위, 사회적



욕망, 투기적 기대가 함께 작동해 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은 다시 작품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순환을 이룬다고 본다. 서술의 범위는 인상주의 탄생부터 현대미술의 자산화까지다. 심동문은 화상과 미술관, 경매, 금융, 국가가 만든 150년의 미술시장 구조를 짚어내며, '예술·금융·국가'의 트라이앵글 구조를 설명한다. 심동문은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이자 서울대미술관장을 지냈다.

2026 우민미술상 선정 최수양(94조소)

최수양 동문이 2026년 제25회 우민미술상에 선정됐다. '우민미술상'은 2002년 제정된 '올해의 좋은 작가 미술상'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우민아트센터(우민재단)가 주관해 온 상으로, 만 40세 이상의 역량있는 중견 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5명의 응모작가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최수양



작가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함께 2027년 우민아트센터 개인전 개최 기회가 제공된다. 최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 졸업후 극사실적 작업에서 출발해 추상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조형 언어를 확장하며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메리아트미술공모전 대상 수상 이페로(정경심/95동양)

이페로 동문이 메리아트 미술공모전의 제2회 대상 수상작가로 선정됐다. 메리아트 미술공모전은 법인보험대리점(GA) '메타리치'가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400여 명이 지원한 공모전 1차 심사에서 선정된 'TOP 10' 작가는 조형아트페어 메리아트 부스전에 참여, 관람객 투표 결과 이페로 동문이 총 2600여 표 중 29%의 지지를 받아 대상 작가로 확



정되어, 상금 5000만원과 내년 조형아트페어 단독 부스전을 갖게 됐다. 모교 동양화와 졸업 후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진 이페로 동문은 작가명에 담긴 먹고(Eat), 그리고(Paint), 사랑하는(Love) 삶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며 일상의 행위와 감정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공간 이스트x이스트 개관 조동호(16조소) · 최동은(17조소)

조동호·최동은 동문이 지난 8월 서울 후암동에 독립 예술 갤러리인 공간 이스트x이스트(space EASTxEAST)를 열었다. 두 동문은 졸업 후 함께 스튜디오 이스트x이스트(studio EASTxEAST)를 운영하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공간 이스트x이스트는 스튜디오 이스트x이스트가 큐레이팅하고 운영하는 독립 예술공간으로 전시, 쇼룸, 팝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



이며, 공예와 디자인, 현대미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연결과 예술적 실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간 이스트x이스트의 첫 번째 소장전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김형석(88서양) 동문의 개인전 <Planet X>을 개최했다. 김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https://easteast.studio/>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돈스모' 여민영(20조소)

여민영 동문이 스톱모션 제작 전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돈스모 (DONSMO)'를 설립했다. 돈스모스튜디오(010-8803-7507)는 각기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수작업으로 완성하여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에 목표를 두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함께하고 있다. 스톱모션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을 제작해나갈 예정인 여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 후



스톱모션 연출과 공연 대본 작가로 활발히 활동해왔으며 스톱모션으로 제작한 졸업작품으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한국 단편부문 선정, 바르셀로나 스톱모션영화제 베스트 스톱모션상 수상, 펜실베이니아 오픈월드페스티벌 상영 초청 등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https://www.donsmo.com> 창작문의: [studio_donsmo@naver.com/](mailto:studio_donsmo@naver.com)

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 윤형근(47회화)

윤형근(1928-2007) 동문의 개인전 <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가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PKM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윤동문이 생전 거주하고 작업했던 서교동 주택 '윤형근의 집' 개관을 기념하여 마련된 기획전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기별 주요 회화와 한지 작업 등 엄선된 총 30점의 작품을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윤동문은 한국 단색화의 흐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로서, 생전 상파울루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등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 및 전시에 다수 초청되었다. 2018년에는 단색화 작가 최초로 그에게 헌정된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전시는 이듬해 베니스 포르투니미술관을 순회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마파 치나티 파운데이션,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도쿄도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점·선-감각 차명희(64회화)

차명희 동문의 초대전 <점·선-감각>이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양주 안상철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40여 년간 자연을 화두로 독자적인 추상회화를 구축해 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자리다. 차동문에게 자연은 눈으로 바라보고, 재현해야 할 풍경이 아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촉감까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에 가깝다. 차동문은 선(線)과 점(點)으로 화면을 지배한다. 선은 바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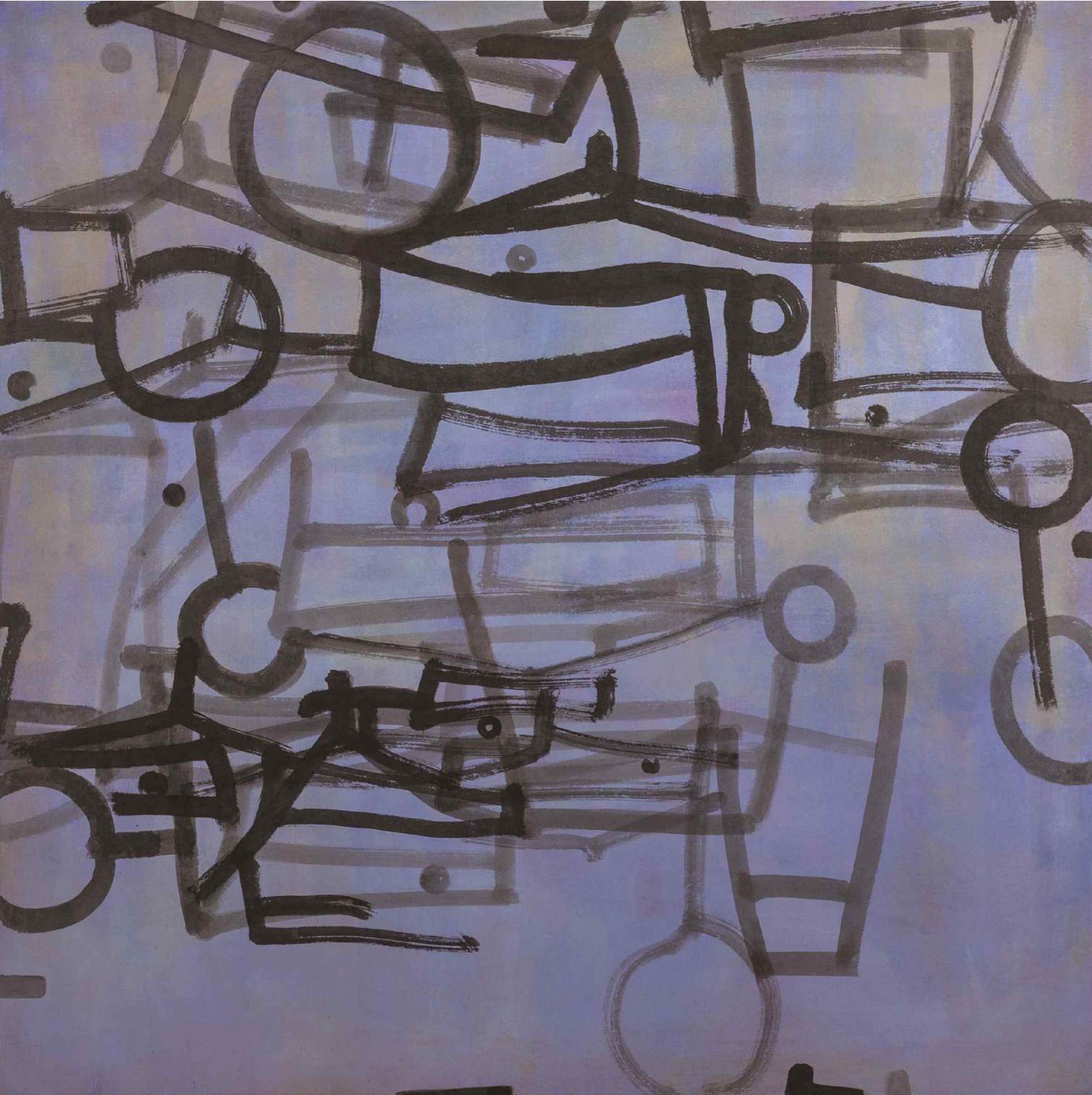
지, 물과 같은 자연의 궤적을 그리며 화면 위를 가로지르고 굽이친다. 악보 위의 스타카토를 연상케 하는 점들은 대자연의 원시성과 역동감을 자아낸다. 전시 제목의 '감각'은 결국 자연을 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작품 속 여백은 점과 선이 서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거리이자 보이지 않는 바람과 물이 지나가는 자리다. 모교 및 동 대학원 회화과(동양화 전공)를 졸업했다.

황인혜전 황인혜(65회화)

황인혜 동문의 개인전 <읽히지 않는 언어>가 오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아트조선스페이스(ACS)에서 열린다.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년,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선과 면, 형태와 리듬으로 풀어낸 2026년 신작 대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황동문의 작업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서 출발한다. 어려서부터 우리 예절과 서예, 문인화에 익숙했던 경험과 서양화 교육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작업 안에 녹아 있다. 한지 위에 여러 물질을 혼합한 안료를 칠하



고, 그 위에 먹과 목탄으로 선을 더한다. 먹선과 여백, 서양화의 재료와 화면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3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매듭단추는 훈민정음의 점에 해당하는 오브제로, 끈으로 이어지고 맺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 목탄으로 그어진 가로세로 줄은 한글의 'ㅡ'와 'ㅣ'를 상징한다. 황동문은 모교 회화과(동양화전공) 졸업 후 국내외에서 3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다수의 국내외 아트페어와 기획전에 참여했다.



읽히지 않는 언어

The Language Unread

황인혜 개인전

Hwang In Hye Solo Exhibition

2026.10.08 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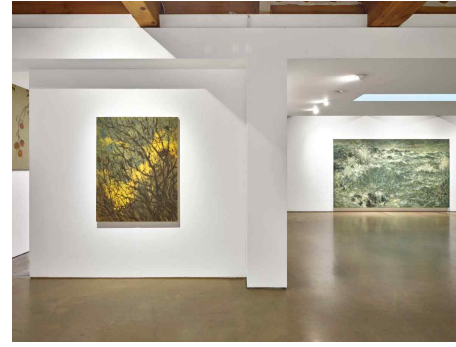
————— 10.21 WED

아트조선스페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0 1층

소소, 반색 강요배(72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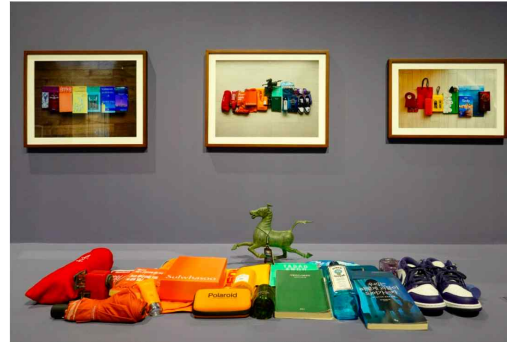
강요배 동문의 개인전 '소소, 반색'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학교재에서 열렸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존재를 반갑게 바라보는 태도, 자연에 대한 오랜 관찰과 경외심에서 출발한 회화 28점이 출품됐다. 자연을 재현하기보다 자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생생한 '의경'(意景·작가의 상상을 통해 재구성한 풍경)을 선보이는 강동문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 또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화면에 끌어냈다. 그는 "한 입만 먹어도 맛있다는 것을 알듯이



한눈에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관람객들이 제목을 알고 보면서 상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아가는 강동문은 터전의 풍광을 그려오는 작가다.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현실과 발언'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제주민중항쟁사' 연작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를 화폭에 담은 민중미술 1세대다. 옥관문화훈장, 이인성미술상, 이중섭미술상 등을 받았다.

휴먼 에러 오인환(77조소)

오인환 동문의 <2026년 13회 타이틀 매치: 오인환 vs. 장서영: 휴먼 에러>가 지난 8월 13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다. 북서울미술관의 연례전인 '타이틀 매치'는 두 작가가 각자의 작업 세계를 집약적으로 펼치는 2인전으로, 올해는 '휴먼 에러'를 화두로 신작 10점을 포함해 총 23점을 선보인다. 두 작가의 작업은 주제와 형식 면에서 달라 보이지만, 인간의 존재 조건과 속성을 깊이 탐구한다는 공통



점을 가진다. 이번 전시는 최첨단 기술이 인간의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진 시대에 도리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작의 본질을 탐구한다.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뉴욕시립대학교 헌터 컬리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도호 서도호(81회화)

서도호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8월 27일부터 2027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다. 학생 시절 초기작부터 작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품, 현재 진행 중인 최근 프로젝트까지 총체적으로 조망하며,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공간과 기억, 정체성의 탐구를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전시에는 서동문이 싱가포르 미술기관 STPI 레지던시를 통해 발전시킨 주요 작품이 다수 포함된다. 또한 서동문은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프리즈 서울'에 참가해 올해 STPI 레지던시에서 작업한 새로운 실 드로잉을 처음 공개했다. 서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뒤 미국 로드아일랜드디자인 학교와 예일대 대학원에서 회화와 조각을 전공했고, 에르메스코리아미술상, 선미술상, 올해의혁신가상, 호암상 예술상을 받았다. 테이트모던, 아트선재센터,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 등에서 전시했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함양아(87서양)

함양아 동문의 개인전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가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8년간 전개해 온 장기 예술 연구 프로젝트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의 신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나와 너, 인간과 비인간, 개인과 공동체가 맺는 관계를 돌아보며, 서로 연결된 순환의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상상하는 장을 제안한다. 서울과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함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미술이론전공)을 졸업한 후 뉴욕대학교 대



학원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했다. 미국, 중국,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여러 지역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화된 자연에 대한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베를린 트랜스미디어알레, 피비갤러리, 텍사스 아트페이스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여러 비엔날레와 타이베이, 카를스루에, 파리, 암스테르담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Planet X 김형석(88서양)

김형석 동문의 개인전 <Planet X>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간 EAST×EAST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공간 EAST×EAST의 첫 번째 소장전이다. 김동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단면 너머를 바라보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갈망을 회화로 풀어내며, 현실의 장면과 장면 사이의 틈에서 문득 비치는 세계의 무한한 얼굴을 환상적으로 재구성해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재나 그것이 지시하는 표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의 심연과 깊이를 느끼고 보이지 않게 연결된



세계를 타인과 나누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몇 점의 회화를 통해 김동문이 그려온 세계의 한 단면을 소개한다. 김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는 전업 작가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16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의 국내외 그림전을 가졌다. 한대회화와 드로잉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탐구하며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화해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88조소)

정연두 동문을 조명하는 대규모 개인전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가 지난 7월 29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동문의 이번 전시는 사진, 영상, 조각, 설치, 사운드, 드로잉 총 3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제목인 <알루미늄 오이>는 1980년대 소련에서 활동한 고려인 출신 록뮤지션 빅토르 최의 노래 제목이다. 고려인 서사의 전반적인 삶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 정동문의 의도는 이주와 이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현재 다양한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생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정동문은 진주 출생으로,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런던 센트럴 세인트마틴대 조소과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 골드스미스대에서 미술석사를 취득했다. 국립현대미술관 '2007 올해의 작가'에 선정됐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Where Light Lingers(빛이 머무는) 김덕기(89동양화)

'행복을 전하는 화가'로 알려진 김덕기 동문의 개인전 <Where Light Lingers(빛이 머무는)>이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로구 노화랑에서 열렸다. 여행 중 경험한 빛과 공기, 그곳에서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그린 풍경화를 선보인 김동문은 "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은 행복했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작은 색점들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이루듯,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 따뜻한 순간이 모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의 풍경화에는 늘 인물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그는 "사람이 빠진 자연은 어딘가 온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작품 속에는 여행지에서 만난 가족, 커플, 홀로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이들이 등장한다. 서양화 재료인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김동문은 동양적 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김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서울에서 10년간 미술교사로 일하고 고향인 경기 여주시에서 전업화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큰 공간의 소리전 우명하(89서양화)

우명하 동문이 개인전 <큰 공간의 소리>를 지난 8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예술공간에서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큰 공간의 소리' 연작과 하늘과 땅을 주제로 한 회화와 연필 드로잉 등 20여 점을 선보였다. 우동문에게 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빛과 공기, 시간이 머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하나의 공간이다. 관람객은 화면 속 깊이 스며든 하늘과 땅의 공간을 따라가며, 마치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자연이 들려주는 조용한 울



림을 경험하게 된다.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우동문은 '빛과 공간을 그리는 화가'로 불린다. 사실적인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자연을 치밀하게 관찰하면서도, 기억과 사유를 통해 재구성한 하늘과 땅의 공간을 화면 위에 구현하는 우동문은 풍경의 재현을 넘어 빛의 흐름과 공기의 밀도, 시간의 깊이를 탐구하며, 자연이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생명력을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92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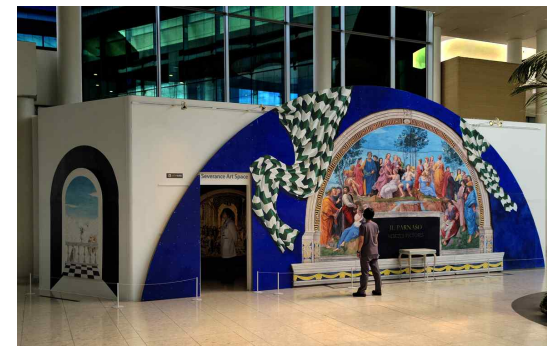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인 이수지 동문의 개인전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의 그림책>이 지난 8월 4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청주시 그림책정원 1937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 작가의 '글 없는 그림책의 미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글 없는 그림책, 책의 구조와 물성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특성이 전시공간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그 기대가 높아진다.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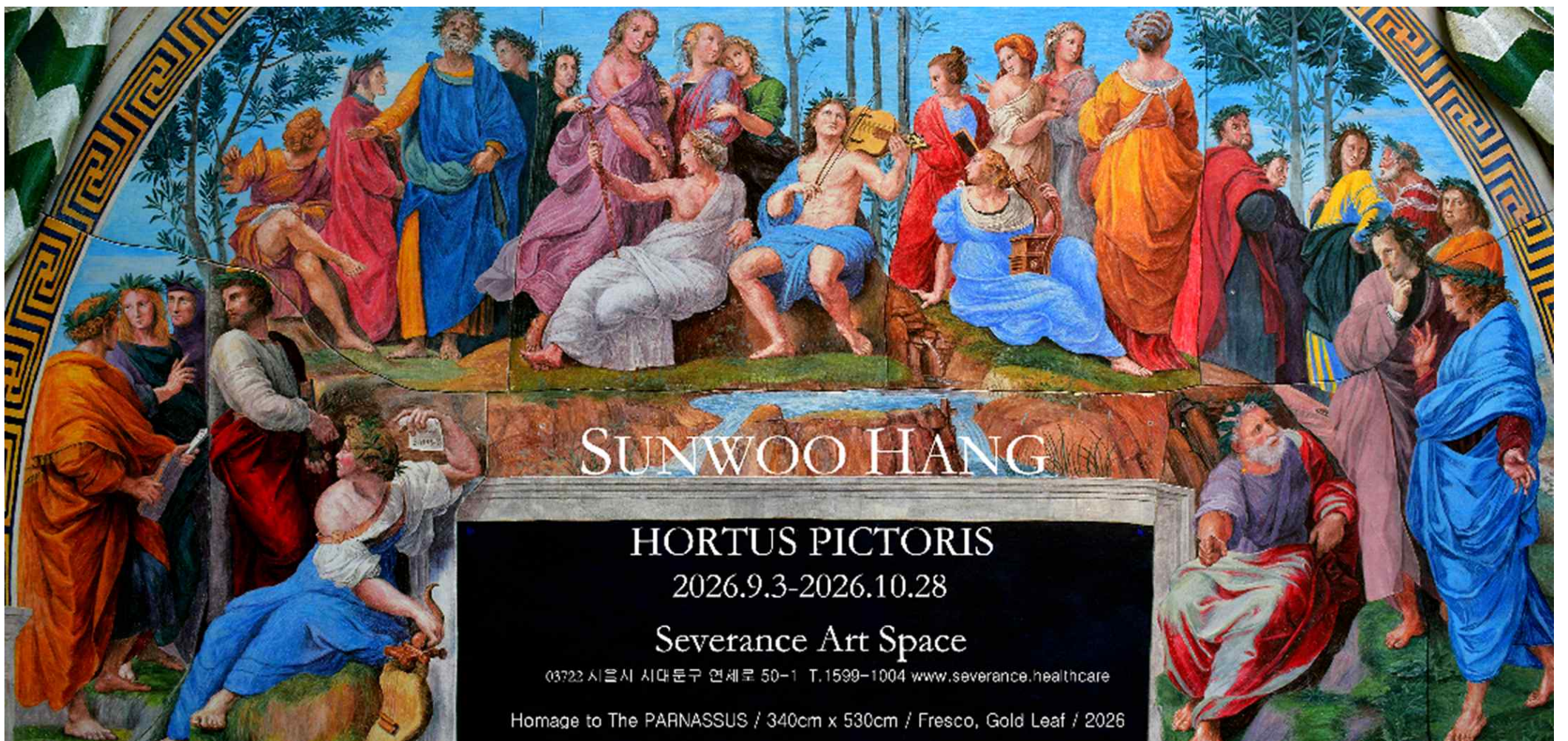
는 이동문의 원화 작품 185점과 아트프린트 전시, 미디어콘텐츠 2종을 만날 수 있다. 또 '그림자 인형과 나만의 그림자놀이', '나만의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 '그림으로 여름을 작곡해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HORTUS PICTORIS 화가의 정원 선우항(91서양)

선우항 동문의 개인전 <HORTUS PICTORIS 화가의 정원>이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화가의 정원 展은 바티칸, 교황의 집무실인 Stanza della Segnatura에 라파엘로가 그린 네 개의 벽화 중 시,예술을 표현한 IL PARNASSO를 오마주한 작품과 작가가 바라보던 겨울 산의 계곡물과 화실 정원의 모습에서 선별한 작품들을 보여준다. 그림들은 Fresco(석회벽화기법)로 제작되었다.



선우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으며,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회화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13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17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서울아카데미와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도(되미)야미)림) 심효선(99서양)

심효선 동문의 개인전 <(도(도(되미)야미)림)>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26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릴레이 프로젝트 개인전' 2회차로서, 입주 기간 이어온 창작 활동의 결과를 작가별 개인전 형식으로 소개하며 각 작가의 예술적 시선과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다. 심동문은 서울 도림천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의 장소성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동과 감각의 경험을 탐색한 작품 11점을 전시했다. 그는 신도림역과 시민농장, 도림천 등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공간에서 잠시 멈춰 주변을 관찰하고 그리는 과정을 통해 익숙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본다. 특히 도림천 이름의 유



래가 된 옛 마을 '되미'와 '도야미'에 주목해 지형과 마을, 하천으로 이어진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회화적 요소로 풀어낸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전시 제목 '(도(도(되미)야미)림)'은 마르티리카 구조를 시각화한 제목으로, '도림 안의 도야미 안의 되미'를 통해 단일 시점으로는 포착 불가능한 역사성과 에너지를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심동문은 모교 서양화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판화전공)를 졸업한 후 2019년부터 서울과 대구, 수원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플로잉 페이스스(Flowing Phases) 박진하(00동양)

박진하 작가의 개인전 '플로잉 페이스스(Flowing Phases)'가 지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인사아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이어온 시간과 기억에 대한 탐구를 '위상'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한 작업을 보여주었다. 박동문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삶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남겨진 기억과 존재의 지속성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시 제목 'Flowing Phases'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여러 상태를 뜻한다. 그는 시간을 한 장면에 붙잡아 두기보



다 지나간 순간이 현재와 겹치고,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지속(duration)' 개념을 주요한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베르그송에게 시간은 같은 단위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서로 스며들며 이어지는 경험이다. 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6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강호연(04조소)

강호연 동문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인전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를 열었다. 전시장은 서초대로 389, 진흥아파트상가 지하 17호. 주소만 있고 간판은 없으며, 계단을 내려가 통로를 지나야 나오는 자리이기에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곳이다. 원래 비어있던 이 자리를 강호연 작가는 하나 하나 채워나가며 그곳에 재료를 들고, 선반을 짜, 사물을 놓아 두었다. 정해진 것 하나 없



었던 지하 한 칸을 전시장으로 만들어 낸, 전시 자체가 일종의 예술적 시도인 것이다. 위 전시를 보기 위해서는 예약한 시간에, 예약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전시는 오시선 오프사이트(@osisun.ch) 인스타그램의 게시글 링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강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를 석사와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울 X 샤넬 프로젝트' 백경원(06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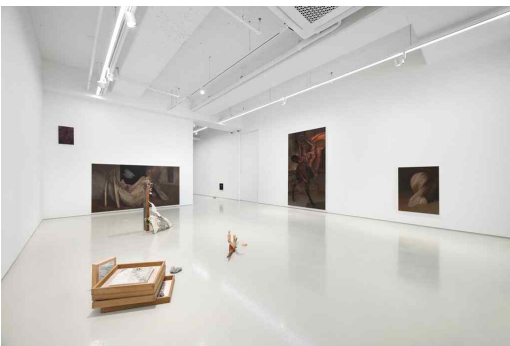
'2026 예울 X 샤넬 프로젝트'의 '올해의 젊은 공예인'에 선정된 백경원 동문의 수상전시 <진소(眞素)공예 : 진경의 눈, 조형의 손 / A Discerning Eye, A Shaping Hand>가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예울 북촌가 및 한옥에서 열린다. 백경원 동문은 손으로 흙을 빚어 올리는 원초적인 형태의 도자 작업을 선보인다. 흙을 쌓고, 펴고, 다듬는 행위에서 출발하는 그의 작업은 기계적인 정밀함보다는 손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흙이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최근 새로운 유약을 개발하고 상감 기법을 활용하는 등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넓혀가고 있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층 확장된 도자 표현과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백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 공예과(도자공예 전공)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모교에 출강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자공예가이다.

Breathing Ruins: Still Wrestling 우수빈(19조소)

우수빈 동문의 2인전 <Breathing Ruins: Still Wrestling>이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용산구 펴(Fim) 갤러리에서 열린다. 우동문에게 폐허는 도달해야 할 풍경이나 재현해야 할 이미지가 아닌, 무언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곳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사건과 사라진 존재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1-18시이며 관련 문



의는 펴 인스타그램(@fimseoul)을 통해 가능하다. 모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우동문은 2026년 '우수빈: 바닥', 2023년 'winter jungle' 등 개인전을 가졌으며, 2026년 '망령의 체온', 2025년 '거인의 역사체'와 '후쿠오카교류전_느린여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겨울철 강원도 작업공간 렌탈

아름다운 평창의 설경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새로운 창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온실에서 푸르른 식물들도 즐기실 수 있는
아름다운 허브나라의 겨울을 함께 하세요~!

평창 허브나라농원 내 30평형 독채펜션 2동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291-42

구조 : 침실1(트윈베드룸), 욕실1, 확장실2, 거실, 복2층 침실, 주방

기간 : 2026년 11월~2027년 3월 *최소 3개월

비용 : 기본관리비 30만원+전기료(난방 및 일반전기 사용한 만큼)
*심야전기 매일 사용시 1달 한겨울 60~70만원 예상

문의: 이지인(92서양) 010 - 3120 - 2902

9월의 전시



읽히지 않는 언어

황인혜(65회화)

10.8-10.21

아트조선스페이스(A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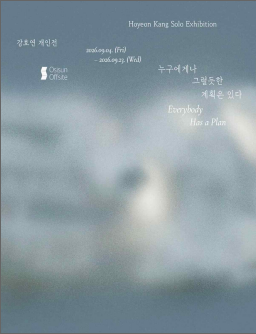


아직, 이제는, 여전히

이수경(78회화)

9.4-9.27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강호연(04조소)

9.4-9.23

오시선



화가의 정원

선우항(91서양)

9.3-10.28

신촌 세브란스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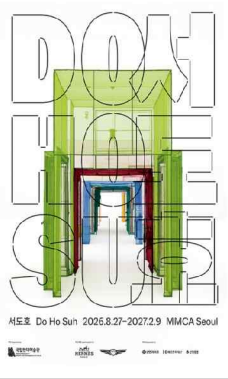


이민주 초대전

이민주(76회화)

9.2-9.19

갤러리 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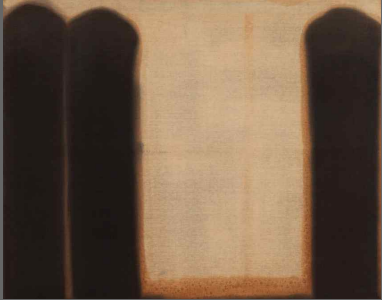


서도호

서도호(81회화)

8.27-27.2.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

윤형근(47회화)

8.26-10.3

PKM갤러리 PKM+



점·선-감각

차명희(64회화)

8.26-9.27

안상철미술관



예울 X 사넬 프로젝트

백경원(06디자인)

8.21-10.16

예울 북촌가



휴먼 에러

오인환(77조소) 외

8.13-10.2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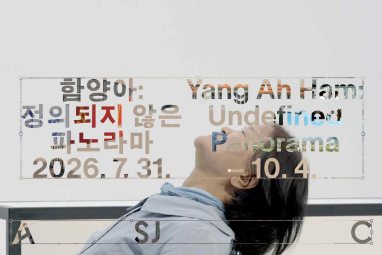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92서양화)

8.4-11.8

금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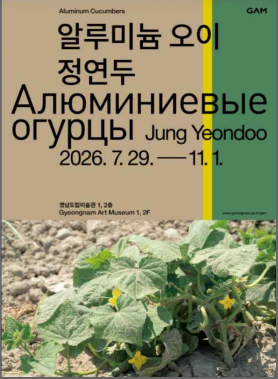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함양아(87서양)

7.31-10.4

아트선재센터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88조소)

7.29-11.1

경남도립미술관



화가 김종학

김종학(56회화)

7.22-10.31

강릉시립미술관



사라진 것들의 기관, 버려진 감정들의 무대

김지아나(박08줄)

7.22-9.19

우민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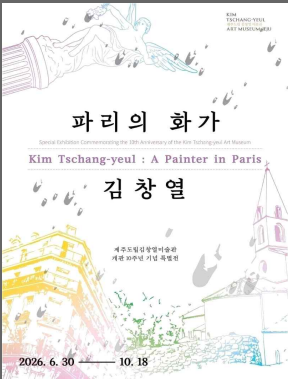


Art of Travel

Novo(12서양) · 채혜선(82응마) 외

7.9-9.19

메타갤러리 라루나



파리의 화가 김창열

김창열(48회화)

6.30-1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남 박소현 정년기념작품전

박소현(80회화)

5.21-10.18

정준호갤러리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유영국(교원)

5.19-10.25

서울시립미술관



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

방혜자(56회화)

4.24-9.27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